다산포럼

중소기업 99 88의 진실

조 영 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중소기업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이고 고용의 88%를 차지한다고 해서 흔히 99 88이라고 부른다. 쉽게 외울 수 있는 숫자라서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TV 토론회 같은 데서 흔히 쓴다.

어떤 경우에 99 88 통계 수치를 쓸까?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니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대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기업을 쥐어짜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한 비율이 53%에 달할 정도이니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99 88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노동 개혁의 발목을 잡는 데도 자주 사용된다. 임금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임금비용 상승으로 지불능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부터 망할 것이며,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실업자가 늘어 한국경제는 더 침체할 거란 얘기다. 99 88 통계를 들이대면 인건비 상승이 뒤따르는 노동 개혁 주장은 한국경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공허한 이야기로 들린다.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야 내수도 늘고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도 99 88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할 정도로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왜 이리 작을까? 고용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 보통 종사자 수 300인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고용 통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2015년 12.3%이고 중소기업 비중은 87.7%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사업체 기준 통계이다. 사업체 기준이란 A기업이 기흥공장이나 평택공장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각 사업체의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란 것이다. 따라서 A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300명을 훨씬 넘어도 각 공장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이면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에서는 A기업의 직원을 전부 중소기업 고용으로 분류한다.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 88%가 과도하게 왜곡된 수치란 것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다.

통계청은 기업 기준의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를 2012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2014년 43.4%에 달한다. 대기업 고용 비중이 12.3%라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수치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를 보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체 근로자 중 70%만 단일 사업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공장·지사·영업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이 사회 현안이 되면서 조선업의 사내 하청이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소속은 중소기업이지만 실제로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중공업 정규직보다 몇 배나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대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수는 92만 명에 달했다.

공립학교 교사도 대부분 300인 미만 사업체 직원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신분이므로 중소기업 고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사내하청과 공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43.3%보다 더 클 것이다. 99 88은 허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반반인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노동 개혁이 곤란하다면 고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대기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014년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이며,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354시간 더 길다. 대기업부터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무시간 지키기, 휴일 근로의 초과 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고령자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고령자 근로시간 피크제, 기간제, 파견 및 사내하청 사용 제한 등 노동개혁을 300인 이상이든, 1000인 이상이든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청춘 톡·톡

흔들리는 청춘을 보거든

이 창 원
광주시 남구 대촌동·청년농부

"집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파트 앞에 나와 서있는 '노란 머리' 소녀. 그레이스의 엄마는 약물중독으로 늘 깊은 잠에 취해 있다. 학교에 데려다 줄 보호자가 없는 그레이스는 오늘도 집 앞에 나와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봤던 적 없는 한 남성이 그 소녀를 몰래 훔쳐본다. 바로 전직 브로드웨이 댄서였던 빌리다. 광장공포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그는 그레이스와 다르게, 10년 넘게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에게는 큰 모험이자 결심을 한다. 늘 커튼으로 가려있던 창밖은 광장공포증이 있는 자신에겐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다. 바로 그 창밖 발코니로 나가보는 것. 얼마 전에도 총격사건이 벌어졌던 위험한 미국 LA 뒷골목을 매일 나와있는 '불안해 보이는 소녀'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서였다.

"넌 왜 이 위험한 곳에 혼자 나와 있니?"

힘겹게 말을 꺼낸 빌리와 달리, 그레이스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다. 그리고 당돌했다. 둘의 대화 중 마지막에 그레이스가 말한다.

"저를 도와주실래요?"

미국 작가 캐서린 라이언 하이드 소설 '흔들리고 있는 소녀를 보거든'의 이야기이다. 아동학대 처벌이 엄격하고 아동들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정부는 그레이스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에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약물에 중독돼 자신을 방치하더라도 엄마와 헤어지는 게 싫은 소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LA 뒷골목 아파트에 사는, 하루 살기조차 팍팍한 이웃들은 마음과 달리 쉽사리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다.

이 소설 속 상황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빽빽한 아파트 숲 속에서 이웃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당연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어색해져 버렸다.

소설에서는 '흔들리는 소녀'를 돕기 위해 이웃들이 나선다. 그렇게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사연을 알게 되고, 결국엔 서로 의지하며 한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무릎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게 두렵고 슬픈 독거노인의 심부름을 해주고, 광장공포증으로 밖에선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빌리에게 용기를 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돕는다. 감정적이든 신체적이든 금전적이든 무엇인가 부족했던 이웃들이 냉대하던 예전과 달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 수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대화'였다.

나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다. 한 때 고시원 생활도 했다. 좁은 방에 나 자신을 가두고 행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세라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늘 피로에 찌든, 삶에 찌든 듯 감정이 메말라 있던 탓일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시생'의 삶은 고달팠고, 외로웠다. 그러다 문득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도 했다. 의연한 척, 태연한 척 바쁘게도 살아가는 나의 청춘을 발견하게 됐다.

'아파트에서 독거노인이 숨을 거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다. 흔하디 흔한 일이 됐다. 그저 길을 가다가 마주쳤을 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나눴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 모른다. 고시원에서 살 때 "몇 년 전 옆 고시원에서 수차례 낙방한 고시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최근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한 한 남성의 기사를 봤다.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춘들. 아무리 태연한 척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고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다. 어쩌면 독서실 내 옆 책상에 앉아 있지만 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던 '저 친구'에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웃'은 있지만 '진짜 이웃'은 없다.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다.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소설 속 이웃들이 부럽다. 만약, '흔들리고 있는 청춘을 보거든'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 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

장 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8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30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현재 연산 62만대 규모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단지를 더해 완성차 기업과 관련 부품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는 이 사업이 정부가 인증한 국책사업이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했다는 의미가 된다.

윤장현 시장이 취임 직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시장 취임 당시 광주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1인당 190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5위, 15~29세 청년취업률은 34.8%로 14위였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창출하기로 하고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절반 수준인 연봉 4000만원대에 각종 복지를 더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난해 8월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연봉 4000만원은 기아차 1차 협력업체 신입사원 수준으로 광주에서는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정 임금으로 판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선진국인 독일에서 이미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로 검증받은바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인구 12만명 가운데 4만명이 폭스바겐에 근무할 정도로 자동차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률이 18%까지 치솟자 위기가 찾아왔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동유럽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때 볼프스부르크와 폭스바겐이 선택한 것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었다. 폭스바겐은 2002년 신차를 내놓으면서 생산 공장을 동유럽에 짓는 대신 'AUTO 5000'이란 프로젝트로 볼프스부르크에 공장을 신설했다. 신설 공장은 본사 직원보다 20% 낮은 연봉(월급 350만원 수준)에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는 조건이었는데 4만명이 지원했다.

볼프스부르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기업들의 '투자절벽'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 투자 대신 국내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지금 국내 사정이 당시 독일과 똑같다. 취업전선에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나갈 정도로 세대간 구직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기업들은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용절벽과 투자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정부와 기업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도 광주형 일자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열린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앞다퉈 국회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호남대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자동차학부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기로 하는 등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통용되는 명제다. 광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몰린다.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社 說

가정용만 전기요금 폭탄…누진제 개편해야

올 들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진세라는 '전기요금 폭탄' 때문이다.

가정용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산업용(81원)이나 상업용(105.7원)이 단일요금 체계인 데 비해 가정용 전기는 2단계 요금만 돼도 킬로와트 당 125.9원으로 치솟는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하 가구 대부분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높은 요금을 내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1단계는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한다는 것이 누진제 적용의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게다가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에서도 누진제를 적용한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대부분 3~4단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요금과 비싼 요금의 차이도 대부분 2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누진 단계를 외국처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전력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심각한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대기업에는 연간 몇 조 원씩의 전기료 혜택을 주면서 가정에만 과도한 부담을 안겨서야 말이 되는가.

달빛동맹 예산 공조 실질적 성과 기대된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2017년 정부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주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모두 나서 중앙부처 및 정치권 접촉을 넓히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와의 협력 강화가 주목된다. 어제 광주·대구시 관계자와 양 지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조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는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장현 광주 시장과 권영진 대구 시장이 만나 영호남 공동 과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약속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 구축과 대구~광주 철도 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을 두 지역 공동과제로 정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더불어 광주 현안인 군 공항 이전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2단계)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내면세점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 당면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도 빠뜨리지 않았다.

광주와 대구가 상생을 위해 맺은 달빛동맹으로 공동과제 추진과 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양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상임위에서 상대방 현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쓴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두 도시는 예산 공조 같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호남 화합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구호나 보여 주기 식 이벤트는 지양하고, 실리가 큰 사업을 개발해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요들송 음악회

"요로 레이리오 로우리오 로웃두리리~." 지난 6~7일 곡성에서 요들(Yodel)송이 울려 퍼졌다. 곡성 레저문화센터 동악 아트홀과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열린 '제2회 월드 요들데이 국제음악회'는 무더위에 지친 청중들을 경쾌한 요들송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섬진강 노래깨비 아이들'과 '광주 어린이 요들합창단'을 비롯한 전국 9개 요들단과 중국·네덜란드·캐나다 등 해외 요들러까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대회 참가자들은 귀에 익은 요들 모음곡 외에 '친구와 함께', '하늘처럼', '광대를 위한 헌시' 등 새롭게 창작한 요들송과 연주곡을 선보였다. 솥뚜껑같이 생겼지만 맑은 울림소리가 나는 '핸드팬'(handpan)과 상자 모양의 까혼(Cajon) 같은 타악기도 이채로웠다.

음악회를 주관한 김성범 (사)섬진강 도깨비마을 촌장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동요를 부르는 세상'을 꿈꾼다. 경쾌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동요와 요들송은 여러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동화작가인 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요들 음반을 4개나 만들었다. 9집 음반 '호랑이는 내가 맛있대'는 우리말 외에 영어로도 번역해서 음원 사이트에 올렸다. 9집에는 김 촌장이 작사·작곡한 '도깨비 요들'이 실려 있다.

"산 내음 그윽한 두메산골 들어서면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 사이로 심심한 산도깨비들 친구를 부른다네/ 홀라라 우리오 리오리 욜라라우리…" 그는 "언젠가는 '빌보드 차트'(미국 대중음악 순위차트)에 동요가 오를 것"이라며 허허 웃는다.

스위스 알프스 지역 목동들이 즐겨 부르던 요들송이 한국에 보급된 것은 1968년이라고 한다.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요들송은 이제 번안곡을 탈피해 한국적인 요소를 품은 새로운 노래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전통 악기인 장고와 어우러지는 핸드팬, 까혼 소리를 상상해보라!

요들송이 곡성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앞으로 '월드 요들데이 국제음악회'가 회를 거듭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축제이자 음악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